

신선·안전...코로나에 더 강해진 '로컬푸드 직매장'

화순·나주 4년새 매출 2배 증가
소비자회원 폭증...비결은 신뢰
당일 유통 원칙에 잔류농약검사 철저

신선하고 안전한 산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기다. 지역 농업인이 직접 기른 농산물만 취급하는 데다 당일 유통 원칙에 따라 신선하다. 또 잔류농약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찾아져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건강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상품권이 풀리면서 로컬푸드는 코로나 수혜 대상이 됐다. 여기에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령농의 경제 참여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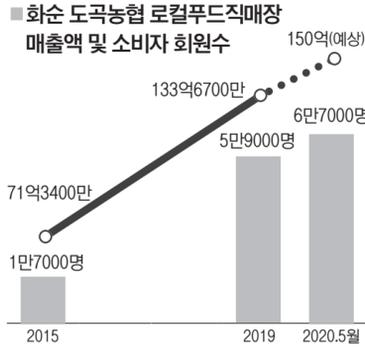
◇로컬푸드 매출 4년새 2배 증가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과 금남점의 소비자 회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빛가람점이 개장한 2015년 11월 이후 4년6개월 만이다. 빛가람점은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약 400만원의 매출에서 시작해 현재는 평균 1150만원의 일 매출을 기록하며 연평균 2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개장 3년여 만에 누적 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나주시는 같은 해 10월 원도시에 2층 한옥 형태의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인 금남점(금남와樂)을 개장했다.

전남지역 대표 로컬푸드 직매장인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5월까지 66억7300만원(로컬푸드 34억8900만원, 마트 31억8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56억9400만원)보다 17.2% 증가한 액수다. 마트 매출을 빼면 하루 평균 2300만원 어치의 지역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연도별 매출 현황을 보면 성장세는 더욱 눈에 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2015년 71억3400만원이던 매출액은 2016년 97억1400만원, 2017년 113억100만원, 2018년 121억6400만원, 지난해 133억6700만원으로 4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비자 회원수도 폭증했다. 직매장 개장 첫해인 2015년 1만7000명이었던 소비자 회원은 지난해 말 5만900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5개월만에 8000명이 늘어 6만7000명의 회원이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고 있다.

강진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도 지난해보다 185% 증가했다. 지난 2017년 직거래 판매 매출은 79억이었다. 이후 2018년 115억원, 2019년 123억원으로 해마다 매출이 상승했다. 올해는 5월 기준 매출 102억원을 돌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



이 185%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비결은 신뢰·신선·안전성 현재처럼으로 증명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비결은 '신뢰'다. 도곡농협은 신선농산물 유통의 경우 당일(23시간)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점은 연채류 1일, 근채류 2일, 과채류 3일 등 신선함이 생명인 농산물 전일 기간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매일 안전성 검사와 3진 아웃제 시행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관리에도 철저하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로컬푸드 소비자회원 1만명 돌파 기념 소비자 행사를 실시했다. (나주시 제공)

빛가람점 개장 이후 905차례를 찾아 방문왕(905회)으로 선정된 A씨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고 다양한 품목이 있어 농산물 만큼은 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장을 본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가체험 투어 등을 통해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장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고령의 농업인들이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공급하면서 수입이 생긴 것

이다. 수입이 생기다보니 부부간에 외식을 하게 되고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는 로컬푸드가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 서병연 도곡농협 조합장은 "신선하고 저렴한 것이 로컬푸드의 매력"이라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고령농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귀농·귀촌인·다문화가정은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csun@kwangju.co.kr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보고한상어워드협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길을 찾다

완도군, 7개국 수상자 화상회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네트워크 강화하는 등 진로를 모색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장보고글로벌재단 산하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협의회는 지난 5일 신우철 완도군수와 7개국 15명의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황상석

관장의 사회로 개회 선언, 박종범 회장 인사말,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환영사, 신우철 완도군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종범 회장은 "5월 예정이었던 완도 장보고수산물 축제 때 수상자들이 완도를 방문해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면서 무산됐다"며 "수상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산도 등 관광객이 많은 섬은 입도를 통제하고 해

외 입국자는 안심 숙소에서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총력 대응했다"며 "완도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양치유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봉규 차스트레이딩 회장(17)과 이재구 아이엘국제물류유한공사 사장(27), 박상운 상해상운무역유한공사 사장(37), 김점배 오만의 알카오스트레이딩 회장(47) 등이 기수별 회장 및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의회, 지역주간지 수사 의뢰

영광군의회가 지난 8일 지역주간지 A사를 명예 훼손 혐의로 영광경찰서에 수사의를 했다.

영광군의회는 "지역주간지 A사가 지난 5일자 1면에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허위 제보를 토대로 보도했다"며 "군민들에게 불신을 조성하고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허위 제보의 의도와 목적이 악의적"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사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이 궁금하다'며 영광군의회 의원들에게

서면 인터뷰 질문지를 발송했다.

질문 내용은 '열병합발전소 축에서 ○○들께 5000만원씩 나눠줬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 확인을 부탁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었다. A사는 의원들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자 '답변 회피하는 이유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군의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8일 한 지역인문사를 상대로 영광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를 했다.

보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불신을 조성하고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심한 모욕감과 함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에 수사의를 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 삼학도화물부두 앞 도로는 중앙선 침범?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시급

지난 7일 오후 6시 목포 김대중기념관 인근 삼학도화물부두 정문 앞. 대형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화물차가 늘어난 차도는 편도1차선이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불법주차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화물 선적이 이뤄지지 않은 날에도 이곳은 대형 화물차량이 10여대 이상 주차돼 있고, 선적이 있는 날이면 불법 주차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단속은 뒷전이다. 이 곳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만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6. 23(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6. 16(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